

가을엔 문화로 물드는 광주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거리공연, 아트광주, '주말은 청춘' 등 올 가을 광주는 문화예술로 물든다.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노희용)은 올 가을 문화예술을 매개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재단은 가을 예술축제와 이벤트를 아우르는 'G-페스타 광주'의 시즌1 '조이풀(Joyful) 광주'(9월25~10월6일)에 맞춰 관람객들이 광주에 머물수 있는 체류형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G-페스타 광주'는 9~10월 광주비엔날레,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에이스페어, 광주충장축제 등 다채로운 18개 행사를 통합 연계한 것으로 광주시 주도로 재단을 비롯해 비엔날레, 관광공사 등 9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광주문화재단 'G-페스타 광주' 18개 행사 통합 예술 이벤트 다채 금남로·광주공원 등 문화광장 변신 프린지페스티벌·아트광주 등 풍성

◇제9회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어쩌다 마주친...' 9월 21~29일 펼쳐지는 거리예술축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올해 슬로건은 '어쩌다 마주친...'이다. 일상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문화예술을 경험하게 한다는 취지다.

올해 프린지는 '거리예술축제'와 '스트리트댄스축제' 등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거리예술축제는 9월 21일과 22일 광주비엔날레, 금남로 일대에서 공연을 선보이고 스트리트댄스 축제는 9월 28일과 29일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거리예술축제는 금남로 일대에서 20여 개 공연이 펼쳐진다. 자체 제작공연 '아스팔트 블루스'는 예술인과 시민배우 등 200여 명이 참여하는 이동형 공연이다. 시민들이 대형바위로 표현되는 일상의 통째에서 벗어나 금남로가 모두를 위한 만남의 광장으로 탈바꿈되는 과정을 담는다. 22일은 비엔날레 주변에서 서커스, 거리극, 음악 등 14개의 거리공연이 펼쳐진다.

해외초청작은 스페인 단체 '올웨이즈 드링킹 마칭밴드', 홍콩 거리예술가 '라이 이'가 금남로와 비엔날레 일대에서 공연을 연다. 스트리트댄스축제는 시청 야외음악당에서 '프린지리크'라는 이름으로 열리며 전국 고교·대학 스트리트댄스 학과 대학 전이라는 새로운 형태로 진행된다.

◇아트광주24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

호남 최대 아트페어 광주국제미술전람회(아트광주24)는 '함께하는 미술시장, 사랑받는 미술축제'를 주제로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재단은 지난 2011년과 2012년에 이어 12년 만에 아트광주를 주관하게 됐다.

올해 아트페어는 미국·프랑스·독일 등 10개국 105여 개의 국내외 갤러리 부스와 8개 특별전 부스 등 총 113개 부스를 운영한다. 금남갤러리(한국화랑협회 대표 황달성), 갤러리 조선(대표 권미성) 등 국내 우수 갤러리들도 참여한다.

현재 상설 '아트마켓'이 미술품 전시·판매와 문화강좌를 연계, 총 8회 진행 중이다. 지역 미술시장 유통 활성화와 선순환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예술의거리 사업단, 남도달밤 야시장사업단과 연계·협력했다. 6~7월 4회 운영됐고, 8~9월 4회가 예술의거리 내 갤러리와 대인예술시장에서 열린다. 문화강좌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스트리트댄스·디제잉·합합 등이 어우러진 '청춘문화누리터' 행사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거리예술축제 '프린지 페스티벌'은 올해 총 20여 개 공연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이지와 구글 폼을 통해 등록 후 참여 가능하다. 아트마켓에 출품된 작품은 플랫폼인 '더어마이 광주' 아트스토어에서 다시 관람하고 구매할 수 있다.

◇광주공원 일대 청춘문화누리터로 변신 '주말은 청춘'

재단의 주변 광주공원 일대를 젊은이들의 문화광장으로 변모시키는 '청춘문화누리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청춘문화누리터'는 광주시의 2024년 '도시의 회복, 걷고 싶은 길' 대표 과제 중 '청춘빛 포차 거리' 사업의 일환이다. 청년이 중심이 되는 스트리트댄스·디제잉, 합합, 전통타악 공연 '주말은 청춘'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재단은 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이은지(빛고를 댄서스 공동대표), 홍성만(프리랜서 디제이), 김

다혜(클럽 심해 대표), 서지원(전통타악그룹 일수 단원), 권선제(핑크밴드 투파이브 리더), 김지은(스카이코드 대표) 등 6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청춘문화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다.

청춘문화기획단은 오는 10월 '주말은 청춘'이라는 타이틀과 '주말 끝에 낙이 온다'는 슬로건으로 청춘문화누리터를 운영한다. 인근 G.MAP(광주 미디어아트플랫폼) 건물외벽에 설치된 초대형 라운드형 미디어월에 공연을 생중계해 현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노희용 대표이사는 "올해 가을 하반기는 광주 비엔날레를 비롯해 가을 축제와 이벤트 등이 광주 전역에서 다채롭게 펼쳐진다"며 "재단은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시민이 즐기고 관람객이 머무를 수 있는 '문화예술 광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마당극으로 보는 '아버지의 해방일지'

정지아 작가 베스트셀러...빨치산 모티브 전라도 말맛 매력

빨치산은 조정래의 '태백산맥', 이병주의 '지리산' 등 문학 작품의 단골 소재가 돼 왔다. 비극적인 민족 분단사와 연관이 있으며 지금까지 다양한 장르의 모티브로 차용됐다.

정지아 작가의 베스트셀러 '아버지의 해방일지'도 빨치산을 모티브 삼았다. 작중 '아버지'는 지리산과 백운산을 누비던 공산주의자였지만 노동절 전복대에 머리를 틀어받고 죽으면서 블랙 코미디가 시작된다.

놀이패 신명(대표 정찬일·신명)이 마당극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오는 23일(오후 7시 30분), 24일(오후 5시)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선보인다. 정지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지정남 배우가 각색·연출한 마당극이다.

극은 전직 빨치산 아버지가 돌아간 후 3일간의 장례식장 풍경을 딸의 시선으로 그린다. 빨치산 2세로 세상의 멸시와 편견 속에서 살아온 딸은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다.

원작과 같이 '작은아버지와 일화', '아버지와 구레 친구들의 이야기', '나와 아버지 사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라는 네 가지 모티브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딸은 아버지 장례식에 찾아온 조문객들의 기억 속에서 그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을 깨닫게 된다. 이를 통해 비로소 아버지의 온정을 이해하고 진정한 '자기 해방'에 이르는 내용.

마당극 구성과 전라도 말맛은 흥과 신명을 더할



신명 강근희, 정찬일(왼쪽부터) 배우가 리허설을 진행하는 장면. <놀이패 신명 제공>

것으로 기대된다. 배우 정찬일, 강근희, 김정훈, 고동민 등이 출연하며 김현무(나랩 대표)는 음악을 맡았다.

신명 김도은 담당자는 "정지아가 보여준 뛰어난 진솔과 소설적 상상력을 '마당극' 형태로 각색한 작품을 선보인다"며 "관객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마당극이야말로 작품의 주제의식을 전달하기 좋은 것이다"고 했다.

일반석 2만원(청소년 1만5000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시인 강연 듣고 공예 작품도 만들고

광주문화관 하반기 프로그램 다채... 13일부터 수강생 모집

'시창작과 콘서트', '책이랑 함께 놀아요', '그림 책과 공예', '어린이 문화학교', '시를 노래하다', '나만의 책 만들기'.

지난해 개관한 광주문화관이 하반기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오는 9월 3일부터 11월 12일까지(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시 창작과 콘서트'(일반인 20명)는 한경숙 시인이 나에게 맞는 문학적 감각 디자인하기 등을 모티브로 강연한다.

'책이랑 함께 놀아요'(심선숙)는 초등 저학년 15명을 대상으로 공예와 게임, 놀이 등을 활용해 책과 친해지는 시간이다. 9월 4일부터 11월 20일(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책의 주제와 관련한 토론회 공예 작품을 만들어 보는 시간도 있다. '그림책과 공예'는 이용남이 오는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강의를 한다.

'어린이 문화학교'(임성규)는 책 읽기와 글쓰기

에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기 위해 기획됐다. 초등2학년 이상 15명이 대상이며 9월 5일부터 11월 21일까지(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시낭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아실현을 모색해보는 시간인 '시를 노래하다'(최도순)는 일반인 20명을 대상으로 강의가 진행된다. 9월 6일부터 11월 15일까지(매주 금요일 오후 2시).

마지막으로 김순영이 진행하는 '나만의 책만들기'는 초등생(15명)을 대상으로 9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13일부터 선착순 모집. 광주문화관 홈페이지 통해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한편 광주문화관 정소라 주무관은 "일반인, 학생,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편하고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문학이나 책, 글쓰기 등에 관심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